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성경: 요한복음 15장 9-14절

Tag: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 15:9-14)

사랑을 더하자.

사랑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16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일4:16)

그래서 사랑의 가치는 절대적이다.

사랑을 표현하는 말은 한 단어이지만, 그 색은 오색찬란하다.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가장 값지며 가장 단단하여 변치 않으며, 순수해서 보는 각도에 따라 모든 색깔을 표현한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그래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소식을 에덴동산에서 들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런 상처도 없고, 아무런 의심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덴동산 밖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자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지도, 알려져도 잘 믿지 않는다.

왜냐면 살아가면서 불쾌한 사건이나 슬픈 일이나, 상처 때문에 순수성에 딱지가 덮였기 때문이다. 더 이상 슬픈 일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그 딱지를 제거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냥 딱지를 지니고 사는 것이 더 심간 편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랑에 대한 자기 내면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나 아벨을 죽인자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가인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놀랍게도 오히려 하나님이 가인의 못된 행동을 막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또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다.(왜냐면 계시면서도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결론 지으면 더 복잡해지고 심란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야 맘 편하게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여러 가지 심각한 논리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논리적인 비약이 가능한 것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자신에게는 자유의지라는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한 채, 그리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저버린 다음에 할 수 있는 생각들이다. 그러므로 이는 매우 심각한 영적 DNA의 손상을 의심해야 한다.

그래서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기 내면화가 각자 개별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서서히 일어난다.

그러므로 사랑은 영성 중에서 가장 크고 핵심적인 영성이다.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사랑은 큰 힘이 있다. 사랑은 신비스러운 힘이 있다. 사람을 가장 사람스럽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람이 가장 사랑스럽다.

(사랑의 어원이 사랑? 사람=살다. 사랑하다?)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동물에서 진화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정확한 증거는 사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사랑은 DNA와 비슷하다. (DNA는 끊임없이 자기를 복제해서 생명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런 사랑의 DNA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다.

인간의 사랑은 동물적인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랑은 아니다. 다만 계명을 지키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므로 비로소 영적인 생명의 안전을 보장 받게 된다. 영적인 안전이 곧 육체적인 안정을 보장한다.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즉 계명은 사랑의 울타리와 같은 것이다.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나의 영성에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것들이 침입해 들어오고, 사랑의 DNA는 파괴되고 엉뚱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심지어 영적인 감각마저 딱지가 덮이고 둔감해지든지, 감각을 잃어버린다.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사랑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울타리를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이웃은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나의 행동반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잠재적 가능성이 있는)이다.

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 고린도 전서 13장에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

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가 되고

2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3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기억하라. 사랑은 율법적인 계명이 아니다. 사랑과 계명은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좋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

성문서

[聖文書, Hagiographa]

헬라어로는 '하기오그라파' 곧 '기록한 글들'이란 뜻으로, 히브리성경의 분류법에 따라 율법서(토라)와 선지서(예언서, 네비임)에 이은 세 번째 부분인 '케투빔'('기록된 글들'이란 뜻)을 가리키는 말이다. 율법서와 선지서에서 취급된 책들 이외에 각각 다른 시기에 정경으로 인정된 전 구약성경의 남은 11권의 책들을 일컫는다.

(한국형 성문서는 율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성문서는 '시가서'(율기, 시편, 잠언), '두루마리서'(아가, 룻기, 애가, 전도서, 에스더서), '역사서'(다니엘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역대기) 등 세 부분으로 나뉜다.

특이하게도 선지서적인 요소가 많은 다니엘서를 역사서로 분류한 것은, 내용이 역사적 기사 위주로 되어 있고, 다니엘이 선지자로 공식 임명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주요 원인인 듯하다. 또한 율기가 사건 중심의 책이지만 시가서에 들어간 것은, 문체가 시어체(詩語體)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문서의 특징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 (특히 시편)

처세술(잠언)

율기;곤경에 처한 율의 내면적 하소연

사랑 이야기(아가)

영생없는 인생의 무상함(전도서)

2. 명칭과 종류

이렇게 다양한 문학 양식의 선집으로 되어있는 성문서이기에, 히브리 성서는 이를 ‘케투빔’(the Writings) 즉 ‘글들’, 혹은 ‘기록들’, ‘문서들’이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시문학으로서의 시편; 지혜문학으로서의 욥기, 잠언; 소위 ‘매길롯’이라고 불리는 축제 두루마리로서의 룻기, 아가, 코헬렛, 애가, 에스텔; ‘목시문학’에 속하는 다니엘; ‘역대기계 역사서’라고 불리는 역사문학으로서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가 속해있다. 칠십인역은 ‘성문서’를 특별히 ‘하기오 그라파’(the Holy Writings) 즉 ‘성(聖)스러운 기록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위의 책들이 ‘성스러운’ 기록들임을 더욱 구체적으로 부각시킨 명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막이 들어있다. 성문서에 해당하는 책들 중, 아가나 코헬렛 같은 책은 지나치게 성(性)적인 표현들과 비관주의적 정서 때문에 ‘거룩함’과는 웬지 거리가 있는 책으로 평가되기도 했고, 급기야는 이 책들을 정말 ‘성서’라고 할 수 있는지가 논쟁의 핵으로 부각되기도 했었다. 설상가상으로 성문서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거룩하다고 믿어왔던 주제들, 즉 ‘출애굽’이라든가 ‘계약’, ‘율법’에 대한 언급을 거의 담고 있지 않기에 이 책들의 ‘성성’(聖性)은 더욱 논쟁적 화두로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칠십인역은 이러한 ‘성스럽지 않다’는 주변의 반응에 일침을 가하고자 이 책들이 그냥 ‘문서’가 아닌 ‘성스러운 문서’임을 명시하는 제목으로 이 책들의 내용을 특징 지운다. 즉, 성문서에 속하는 책들은 특별히 부각되는 사건이나 신학적 이슈는 없다 해도, 일상의 평범함 안에서 ‘성스러움’을 찾아내고자 했던 책들이고, 사실 이러한 노력은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에 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놓지 않으려던 구약성서 신학의 구체적 심화 혹은 확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시문학 - 정체성에 대한 기억

일반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시나 노래는 ‘거룩함’과는 웬지 거리가

먼 듯한 느낌을 준다. 뭔가 신앙과는 대별되는 대중적 감정과 정서의 산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문서의 시문학은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표출한 평범한 시와 노래가 얼마나 ‘거룩한’ 것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시편에 수록되어있는 많은 노래들은 유대인들 누구나가 그들의 일상과 전례 중에 즐겨 불렀던 노래들이었고, 따라서 그 노래들은 그들의 삶과 역사, 고유한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는 일종의 문화적이고 민족적인 코드였기 때문이다. 아가 역시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대중적인 모티브를 통해 하느님과 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성공한 작품이었다.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것이, 사실은 가장 진실하고 본질적인 것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다. 이렇게 시와 노래가 가지고 있는 대중성과 일상성은 남의 나라 땅에 유배가 있던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조국과 민족, 그리고 그들의 하느님을 기억하게 하는 신학적 모티브로 발전하였고, 이스라엘의 삶 안에 확고한 위치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5. 묵시문학 - 사자굴에서도 살아남기

이민족의 지배와 억압으로 고통 받을 때, 고통과 울분을 넘어 그들을 하나로 규합시켰던 것은 하느님께 대한 ‘투철한 믿음’이었다. 이를 위해, 묵시문학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순수한 열망만 있다면 ‘사자굴’ 속에서도 의연히 살아남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당시 이스라엘이 대면해야 했던 가장 큰 위협은 외압과 폭력만이 아니었다. 종주국의 현란했던 문화, 그 자체가 주는 매혹은 어쩌면 외적인 박해보다 더 위험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언어, 몸차림, 세련된 의식, 과감하고 자신감 있는 분위기는 열등민족의 젊은이들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유대의 젊은이들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이러한 와중에 성문서의 묵시문학은 다니엘이라는 청년의 일생을 통해, 그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고 살리는 것은 이국 문물에 대한 동화가 아니

라 하느님과과의 절대적이고 친밀한 관계임을 분명히 조명해주고 있다.

6. 역사문학 - 오염되지 않은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다

이러한 입장은 에스텔서나 에즈라, 느헤미야, 역대기 같은 역사문학을 통해서도 강조된다. 지각있는 유대인들은 하느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와 무장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슈임을 깨닫고 있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그들은 이미 역사서(신명기계 역사서: 여호수아, 판관기, 사무엘, 열왕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역사서를 하나 더 편찬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편찬된 책이 바로 역대기계 역사서라고 불리는 책들(에즈라, 느헤미야, 역대기)이며, 이 작업을 통해 성서 저자들은 그들 역사 안에 현존하시며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하느님을 신학적으로 다시금 증언하고자 하였다. 또 다른 역사문학 작품의 하나인 에스텔서 역시, 연약해 보이기만 하는 여성을 통해, 하느님께 대한 오염되지 않은 믿음과 민족에 대한 순수한 사랑, 그리고 모든 것에 자신을 바치는 투신이 있다면, 그런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음을 통쾌한 필치로 보여주고 있다.

7. 지혜문학 - 고통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박해 때가 아닌 일상생활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던져졌던 화두는, 지금, 여기, 오늘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물음의 대안으로 저술된 성문서의 지혜문학 작품들(잠언, 코헬렛, 욱기)은 ‘하느님께 대한 경외’가 모든 사건, 삶, 시간의 본질이 됨을 강조한다. 특별히 코헬렛이 강조하고 있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표현은, 언뜻 보면 삶에 대한 회의주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일생을 바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고 삶이지만, 사실 내일은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느님만의 비밀이라는 것,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직시에서부터 시작됨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은 각자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 수 십 년을 노력하며 일생을 바치지만 어쩌면 그것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유실될 수도 있는 것이기에, 결국 가장 확실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을 후회 없이 사는 것이라는 각성이 지혜문학 안에서 강조되고 있는 하느님의 지혜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 현실의 한계상황은 욕기에 무엇보다도 잘 드러나 있다.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타인들로부터 ‘의인’이라는 칭송까지 받았던 그였지만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는 체험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된다. 이러한 욕의 처지는, 현재 우리의 현실 안에서도 너무도 빈번히 발생하는 사건들이다. 굳이 IMF 때가 아니라도 하루아침에 욕의 처지가 되어 버리는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친 ‘고통’으로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한 이들에게, 성문서의 지혜문학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야말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은총의 장이며, 지혜의 근본인 하느님계의 경외를 배우게 되는 기회임을 역설적으로 인식시켜주고 있다.

‘네 멋대로 살아라!’ 어느 날 이 문구의 광고를 보면서, 나는 그 표현이 가지는 매혹과 불가능성을 동시에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게, 그렇게 산다는 것이, 도대체, 살아있는 한, 가능한 일일까? 내 멋대로 사는 당사자에게 일시적으로 선사될 그 자유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은 얼마나 큰 희생을 강요당해야 하는 것일까?... 구약성서의 성문서가 가르쳐주는 ‘자유로운 삶’은 오직 하느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도래한다. 성공, 야망, 칭송, 부귀영화 이런 것이 아닌 오로지 하느님께만 매여 있을 때, 인간은 가장 당당한 품위를 지닐 수 있으며, 불안과 낯설음, 소외, 서글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을 부단히 역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멋대로 사는 삶 보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는 지혜, 성문서가 제시하는 삶의 대안이며, 그 영리함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한다. 이토록 심란하고 복잡한 세상의 위험과 닢으로부터...

야곱의 우물에서 김 베아트릭스 수녀님이 게재한 글입니다.